

靈光 佛甲寺 八相殿의 腹藏典籍考 *

A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 in the Palsangjon
at the Bulgapsa, Yeonggwang

姜 順 愛(Kang, Soon-Ae) **

◁ 목 차 ▷

- | | |
|-----------------------------|-----------------|
| 1. 序 論 | 5. 八相殿 腹藏典籍의 價値 |
| 2. 佛甲寺의 沿革 및 重創 | 6. 結 論 |
| 3. 佛甲寺 八相殿의 沿革과 腹藏 | <참고문헌> |
| 4. 八相殿 腹藏典籍의 書誌의 特徵
및 性格 | 부록 1. 八相殿腹藏典籍目錄 |

< 초 록 >

이 글은 영광 불갑사의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을 밝히기 위해 불갑사의 연혁 및 중창, 불갑사 팔상전의 연혁과 복장, 팔상전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 팔상전 복장전적의 가치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영광 불갑사 팔상전에서 나온 자료는 60종이다. 이들 자료중 간기가 있는 것은 고려 禔王 4년(1378)부터 조선 宣祖 41년(1608) 사이의 것으로 팔상전의 복장불사를 위해 인근의 高山, 順天, 光州, 潭陽, 羅州, 淳昌 등의 전라도 지역 및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한 판본들이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는 경전류, 선종류, 예참류 자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전류 자료 중에서는 「楞嚴經」, 「川老金剛經」, 無量寺 「月印釋譜」 권23 번각본이 중요한 자료이다. 선종류 자료 중에서 「法集別行錄并私記」 고려본 1책,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목판본은 귀중한 자료이다. 예참류 자료들은 모두 의례에 관한 것으로 두드러진 것들은 없으나 16세기~17세기의 자료들 중 기존의 판본들과 다른 것들이 몇 가지 발굴되어 의미가 있다.

이들 복장전적은 팔상전에서 발굴된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이들 자료 중에는 국가 보물급으로 지정될만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기존의 판본과 비교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어 중요한 집서군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결과는 서지학, 한국학, 불교학 등의 분야에서 불교복장을 연구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要語 : 영광 불갑사 팔상전, 복장전적, 능엄경, 천노금강경, 무량사본 월인석보 권23, 법집별행록병입사기,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특별연구비에 의함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5년 11월 9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ed in the Palsangjon at the Bulgapsa, Yeonggwang.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in the four aspects such as: 1)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Bulgapsa; 2) the history of Palsangjon and the investigation of materials found in the Palsangjon; 3) the phys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riptures; 4) the value of a newly-founded books.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 in the Palsangjon consist of 60 kinds of books. These books were published at Gosan, Suncheon, Gwangju, Damyang, Naju, and Sunchang in Jeonra province and Gyeongsang province and were sent to the Bulgapsa to perform the Buddhist rites. Their publication periods ranged from the 4th year of Woowang's reign(1378) to the 41st year of Sunjo's reign(1608). The subjects of these books are Sacred books, Zen Buddhism, Buddhist rites. As for the Sacred books, 「Neungomgyeong」, 「Cheonro-gumganggyeong」, and 「Wolinsokbo」 vol. 23 reprint are the most important books. Among the Zen Buddhism, 「Bopjip-beolhangrok-beongip-saki」 the Kyoro edition 1vol. and 「Baekwunhwasang-buljo-jikji-simcheyeojol」 wood block print are also rare books. In the subject of Buddhist rites, these books are not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but have its own value according to the edition compared with other 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It is approved that these sacred books newly founded in the Palsangjon at Bulgapsa have the various and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ational treasure. These books are the important collection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ol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for research the Buddhist scriptures in the fields of bibliographical science, Korean studies, and Buddhist sciences, and others.

Key words : the Palsangjon of the Bulgapsa,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ed in the Palsangjon, 「Neungomgyeong」, 「Cheonro-gumganggyeong」, 「Wolinsokbo」 vol. 23 reprint, 「Bopjip-beolhangrok-beongip-saki」 the Kyoro edition, Baekwunhwasang-buljo-jikji-simcheyeojol」 wood block print

1. 序 論

영광 불갑사는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번지 모악산에 위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창건은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원성왕시의 중창을 거쳐 고려 각진국사시에 번성을 구가하였다. 조선조에는 정유재란 이후에 범릉, 해릉, 조암, 채은, 득성, 봉기, 동성, 금화, 만암, 설제, 지선, 수산스님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는 불사가 이어져 왔다.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돋보이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불갑사의 복장전적불사는 1635년에 조성된 대웅전의 삼존불상에 많은 서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는 모두 도굴되어 자세한 내력을 알 수가 없다. 다만, 1998년 명부전, 팔상전, 사천왕상에서 불서가 발굴됨으로써 효종, 숙종조에 복장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복장불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의해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었다.¹⁾

그 중 팔상전에서는 60종의 복장 불서가 가장 많이 발굴되었다. 이들 자료는 고려 禪王 4年(1378)부터 조선 宣祖 41年(1608) 사이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려말기부터 조선조 후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자료의 서지적 연구를 위해 불갑사의 연혁 및 중창, 불갑사 팔상전의 연혁과 복장, 팔상전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 및 성격, 팔상전 복장전적의 가치 등으로 나누어 살펴서 팔상전 복장전적불사의 의미를 제고하고자 한다.

2. 佛甲寺의 沿革 및 重創

불갑사는 삼국시대 백제 枕流王 1年(384)에 인도의 摩羅難陀가 창건하였다는

1) 姜順愛, 靈光 佛甲寺의 腹藏典籍考. 동국대사찰조경연구소, 1998. 『사찰조경연구』 6집 19-48. ;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 동국대박물관, 2001.

설이 있다. 마라난타는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들어와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물이다. 마라난타가 백제에 들어오자 침류왕은 그를 궁궐로 영접하여 예를 갖추었고, 이듬해인 385년 2월 지금의 경기도 광주 남한산 부근에 절을 짓고 열 사람을 득도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록인데, 불갑사에 전하는 『영광군 불갑사 만세루 중수 상량문』에는 마라난타가 남한산 부근에 절을 창건하기 전에 이미 불갑사를 창건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두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역사적인 고증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마라난타의 창건설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설득력이 있다. 마라난타는 당시 동진에서 백제에 입국할 때 절인근의 法聖浦를 통해 들어왔으므로 이곳에 절을 지었을 가능성은 크다.²⁾

불갑사의 중창은 『佛甲寺重修勸施文』에 의하면, 조선 중기에 노승이 범당의 改椽시에 그 위의 대들보에서 ‘貞元元年改造’라는 6개의 글자가 발견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貞元元年은 당 德宗 6年이고 신라 元聖王 1年(785)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³⁾

三創은 고려 元宗 - 恭愍王朝에 覺眞國師(復丘, 1270-1355)가 불갑사에 머물면서 사찰을 크게 중창시켰다. 이때는 전각이 100여칸, 승방 70여원, 요사 400칸이나 되었고, 누각의 기둥높이가 90척, 그리고 범당은 한꺼번에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당시 그의 제자들 수백 명이 叢林洞을 형성하고 있었다⁴⁾고 한다. 覺眞國사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조계산 修禪寺(오늘날의 순천 松廣寺)의 圓悟國師(天英, 1215-1286)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원오국

2)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서울: 동연구원, 1996). 318.

3) 姜沆(睡隱), 佛甲寺重修勸施文: “...其重創則老僧因法堂改椽時 得見其上梁 則有大書六字曰 貞元元年改造...”.

4) 姜沆(睡隱), 佛甲寺重修勸施文: “... 有巨刹五百餘間 僧房七十餘院 廊環四百餘高九十尺 法堂百座百餘人... 高麗忠烈王朝 有王師覺眞 自京師至卓錫而居之 其弟子數百環寺爲叢林洞...”.

李萬石, 佛甲寺古蹟記: “其三創則在高麗忠烈王朝 而王師覺眞者實幹其役 以麗史及元記 參參考之 則似在順帝至元(正)元年壬午(忠惠王3, 1342) 有益齊碑文中 歲月可證... 若言三創之後 則巨刹立百餘間 僧房七十餘廊 寮四百餘柱 樓高九十尺 法堂可座數百人...”

사가 입적하자 수선사의 제12세 慈覺國師 道英스님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21세가 되던 忠烈王 16年(1290)에 승과의 하나인 禪選上上科에 합격하였으나 조계산중에 머물며 학문에 힘썼다. 이후 白巖寺에서 10여 년간 주석하였으며, 月南寺와 松廣寺에서 전후 40여년을 보냈다. 恭愍王 1年(1352)에 王師로 책봉되어 불갑사에서 주석하였으며, 恭愍王 4(1355)에 불갑사에서 백암사로 거처를 옮겨 그 해 7월 27일에 임종계를 남기면서 입적하였으니 세수86세 법랍 76세이다. 불갑사의 중창은 각진국사가 머물렀던 시기를 참조하면 恭愍王 1-4年(1352-1355)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조선시대는 丁酉再亂으로 불이 나고 오로지 饑日菴만이 남아 있었는데, 法稜이 대중에게 호소하여 재물을 구하여 네 번째로 중창을 할 수 있었다. 仁祖 12年(1634)에는 海稜스님이 법전을 개조하여 다섯 번째로 중창하였다.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법당과 불전은 5개소로 그리고 요사는 10분의 1로 축소되었고 인근의 암자도 10곳 중의 2곳만 남게 되었다.⁶⁾ 四次의 중창시 『佛甲寺重修勸施文』을 작성했던 姜沆은 영광 사람으로 의병활동 중 포로가 되어 1600년에 귀국하여 1608년에 순천교수로 있다가 사직한 후 고향인 영광에 은거했던 것으로 보아 불갑사 대웅전이 17세기 초에 재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仁祖 22年(1644)에는 照岩스님이 전각 일부에 단청을 새로 하는 등 5칸을 중수하였고, 孝宗 5年(1654)에는 명부전에 지장삼존상, 시왕상, 판관, 녹사, 사자, 인왕의 造像과 지장탱화를 조성하였다. 肅宗 1年(1675)에는 전각 7칸을 증축하였고,

5) 李益齊, 佛甲寺覺眞國師慈雲塔碑: “... 乃命有司 遂冊爲王師 時住佛甲寺以年高道阻未敢屈致畫像瞻禮... 上卽位之二年壬辰也(恭愍王 1, 1352)... 至元庚午(원종11, 1270)九月十五日生... 年甫十歲就曹溪山圓悟國師剃落受具 未幾 圓悟順寂以遺囑 從大禪師道英孜請益十年... 庚寅(忠烈王16, 1290)秋中禪選上上科 時二十一 ... 往白巖寺與同志如于人蚤夜參究十又餘年 住月南松廣大道場 前後四十餘年... 乙未(恭愍王 4, 1355)移寓白巖寺夏六月示疾七月二十七日... 翌日門人號奉茶毗于寺之西峰下 函還佛甲寺...”

6) 李萬石, 佛甲寺古蹟記: “其四創則丁酉兵燹之後 蕩燼無餘 惟饑日菴獨存 而浮屠法稜者發願鳩財 重修殿宇 有睡隱卷軸可考 其五創則在於崇禎後甲戌(仁祖 12, 1634)而有僧海稜者募緣募功改造法殿 此則雖無記蹟 而赫赫若曰前事焉... 至於四創以後 則法堂及諸佛殿有五房舍 則十有一焉 菴堂則十有二焉...”

7) 佛甲寺大雄殿(寶物 830號).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2. 『한국의고건축』 14(1992), 89.

肅宗 28年(1702)에 팔상전에 팔상탱화를 조성, 봉안하였으며, 肅宗 31年(1705)다시 7칸을 새로 지으며 낡은 기와를 수선하였다. 이듬해인 肅宗 32年(1706)에는 玉岑이 大菴寺 16나한 조성의 경험을 살려 불갑사의 16나한을 조성하였다.

英祖 17年(1741)에는 采隱스님이 절을 중수하고 진사 이만석이 『佛甲寺古蹟記』를 남겼는데, 姜沆의 『佛甲寺重修勸施文』에 이어 불갑사의 연혁을 상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⁸⁾ 英祖 40年(1764)에는 晴峯 대선사가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이듬해에 향로전을 중수하면서 그 동안의 중창불사를 마무리하고 『母岳山佛甲寺重創書』라는 현판에 그 내용을 남겼다. 이 무렵 절에는 스님 30여명이 거주하면서 전답이 285필지 81부 1속에 달하였다고 한다.

純祖 2年(1802)에는 得性대사가 만세루를 중수하였고, 高宗 13年(1876)에는 雪竇 奉珙 선사가 전북 武長 烟起寺에서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모셨으며, 1904년에는 錦華대선사가 만세루를 중수하고 이어서 1907년에는 사천왕탱화를 봉안하였으며, 1909년에는 동파스님과 함께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이때 영광읍에 불갑사 포교당인 원각사를 세우고 탕화 5점등을 봉안하였다. 1936년에는 曼庵스님이 후원자리에 있던 명부전을 현재의 대웅전 앞쪽으로 옮겨짓고 각 전각의 불사에 개금을 새로 하였다. 만세루는 1938년에 雪靄스님이 개수하면서 누각의 왼쪽을 한 칸 줄여 6칸으로 축소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1974년에 지선 스님에 의해 범종루와 범종이 조성되었고, 1976년 무렵부터 壽山知宗스님이 주석 하면서 각 전각에 대한 보수가 있었다. 1984년에는 계속 중수가 이어져 범당이 3칸인 점을 고려하여 만세루를 다시 한 칸 줄여 5칸으로 개수하였다. 1984년에는 계속 중수가 이어져 범당이 3칸인 점을 고려하여 만세루를 다시 한 칸 줄여 5칸으로 개수하였다. 이어서 1987년부터는 대웅전 앞 오층석탑에 불사리 5과를 설치했다. 1996년 1월에는 만세루에 기와를 새로 입히는 등 고찰의 기품을 드러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종탑불사가 완성되고 박물관 등이 조성되고 있다.

8) 李萬石, 佛甲寺古蹟記: “崇禎紀元後再度辛酉(英祖17, 1741) 端陽月甲申陽城後人進仕李萬石誌”.

3. 佛甲寺 八相殿의 沿革과 腹藏

영광 불갑사의 八相殿은 앞면 3칸, 옆면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본래 팔상전이란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을 여덟로 나누어 묘사한 불화를 모신 전각이다.<그림 1> 9)



<그림 1> 영광 불갑사의 팔상전

팔상도를 안치하고 있으므로 팔상전이라고 하고, 영산회상도가 걸려 있어 영산전이라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화 없이 불상으로 석가불과 여러 권속을 봉안하고 팔상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불갑사 팔상전에는 주존불로 불단의 정면에 봉안된 목조의 석가삼존상이 모셔져 있다. 가운데 釋迦佛을 본존으로 해서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좌상으로 모셨다. 석가불은 높이 77cm, 어깨너비 47cm, 무릎 폭 50.5cm이고 방형에 가까운 넓직한 얼굴에 균형 잡힌 아담한 체구를 갖고 있다. 양 협시보살상은 높이가 78cm, 어깨너비 31cm, 무릎 폭 45.5cm이

9)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 동국대박물관, 2001. p.321의 사진을 다시 인용한 것임.

며 보관을 제외하고는 본존인 석가여래와 같은 틀에서 찍어낸 듯 닮은 골의 안면 표현을 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다시 그 옆으로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아난과 가섭존자를 입상으로 보시고 또 16羅漢像도 봉안하였다. 16羅漢像은 도인 玉岑이 조성한 것인데, 옥잠은 肅宗 27年(1701)에 大菴寺에 주석 하면서 16羅漢像을 조성했고, 肅宗 31年(1705)에는 推善寺에서 如來像掛佛을, 같은 해에 雲興寺에서 여래불을 그렸으며, 肅宗 32年(1706) 應楚스님 재직 시에 대둔사 16羅漢像 조성의 경험을 살려 불갑사의 16羅漢像을 조성하였다.¹¹⁾ 이때 造像畫員은 楚下, 靈善, 覺楚, 釋俊, 定慧, 瑞行, 澄性, 致海, 寂勝, 澄海, 四祥이 동원되었다.¹²⁾

이들 16羅漢像은 나한전에 별도로 모셨다가 나한전이 쇠락하면서 허물고 팔상전으로 옮겼고, 석가삼존불을 양쪽에서 시립하고 있는 아난·가섭존자와 보살형으로 표현된 제석·범천상 사이의 좌우 벽면에 卍자형을 이루며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탈속한 경지를 반영하듯 파안대소하기도 하고 살며시 미소를 머금기도 한 생기 넘치면서도 개성적인 얼굴표현을 하고 있다.¹³⁾ 조성과 동시에 복장불사가 이루어져 그 발원문이 각 나한상에서 발굴되고 있다. 그밖에 시자상, 사자상, 인왕상을 각각 2분씩 모셨다. 이처럼 석가불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과 제자 그리고 수호신들이 한데 어우러진 팔상전은 마치 석가 재세시의 영축산 법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광경을 보여준다. 팔상전은 英祖 39年(1763)에 중건하였고, 純祖 22年(1822)에 세 번째 중창이 이루어졌다.¹⁴⁾ 안에는

10)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 동국대박물관, 2001. pp.48-49.

11) 佛甲寺十六羅漢造像願文: “康熙四十五年(肅宗32, 1706)丙戌四月初一日十六羅漢造像願文 第一尊者賓頭盧跋羅墮闍尊者…有道人玉岑焉 淳昌卽其胎邑也…歲辛巳 肅宗 27, 1701)住錫于大菴寺 造羅漢佛十六像既成之 越五年乙酉(肅宗31, 1705)到推善寺 畫成如來像掛佛 繼之以又成如來佛於雲興寺 明年丙戌(肅宗32, 1706)轉進于箕城地南母岳佛甲寺 巡覽一周 恨其佛像之未能盡備 因以大菴寺所造佛像繼營 此遍造于諸僧 僧遂助之 以此得經始焉…”

12) 佛甲寺十六羅漢造像願文: “畫員秩: 楚下, 靈善, 覺楚, 釋俊, 定慧, 瑞行, 澄性, 致海, 寂勝, 澄海, 四祥”

13)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 동국대박물관, 2001. pp.49-50.

14) 八相殿重建上樑文: “雍正42年(乾隆28, 1763)八相殿重建大功德尙天 道光2年(純祖22, 1822)壬午三重創大功德閼暎再先 初創則不知何年之誰爲者其文獻不足故也”

또한 1985년에 작성된 「팔상전칠성각개축급단청기」 현판이 걸려 있다. 한편 지금은 다른 곳에 옮겨졌지만 한때 이 팔상전에는 肅宗 28年(1702)에 조성한 팔상탱화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4. 八相殿 腹藏典籍의 書誌的 特徵 및 性格

팔상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낱장류를 제외하고 58종(부록 1의 12와 15는 합철본이라 2종으로 계산함)이었다. 이들 자료의 서지적인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1>과 <부록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팔상전의 복장전적

番號	書名	板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分類
44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45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46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47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48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49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50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51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52	六經合部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6年(1424) 刊 翻刻	경전-경집부
5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太宗 5年(1405) 刊 後刷	경전-법화부
8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25年(1443) 刊 後刷	경전-법화부
9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25年(1443) 刊 翻刻後刷	경전-법화부
10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 25年(1443) 刊 翻刻後刷	경전-법화부
6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初期] 刊 後刷	경전-법화부
7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初期] 刊 翻刻	경전-법화부
11	妙法蓮華經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初期] 刊 翻刻	경전-법화부
2	妙法蓮華經	刊經都監 翻刻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以前]	경전-법화부
32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聞慶	深源菴	中宗 20年(1525) 刊 後刷	선종-중국찬술
33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智異山	南臺菴	中宗 34年(1539) 刊 後刷	선종-중국찬술

14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鶴鳳山	石頭寺	明宗 1年(1546)	선종-중국찬술
28	大慧普覺禪師書	板本	頭流山	新興寺	宣祖 3年(1570)	선종-중국찬술
30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高山	安心寺	宣祖 8年(1575)	선종-중국찬술
31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高山	安心寺	宣祖 8年(1575)	선종-중국찬술
29	大慧普覺禪師書	木板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以後]	선종-중국찬술
12-1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高山	花岩寺	成宗 24年(1493)	선종-중국찬술
21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晉州	新興寺	中宗 32年(1537)	선종-중국찬술
23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金剛山	楡岾寺	明宗 8年(1553)	선종-중국찬술
22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海州	神光寺	宣祖 4年(1571)	선종-중국찬술
26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順天	松廣寺	宣祖 41年(1608)	선종-중국찬술
27	禪源諸詮集都序	木板本	順天	松廣寺	宣祖 41年(1608) 刊 後刷	선종-중국찬술
4	法集別行錄并私記	木板本	未詳	未詳	[高麗末期]	선종-한국찬술
12-2	法集別行錄并私記	木板本	光州	圭峯菴	成宗 17年(1486)	선종-한국찬술
20	法集別行錄并私記	木板本	祥原	解脫寺	宣祖 4年(1571)	선종-한국찬술
24	法集別行錄并私記	木板本	智異山	能仁菴	宣祖 37年(1601)	선종-한국찬술
25	法集別行錄并私記	木板本	智異山	能仁菴	宣祖 37年(1601) 刊 後刷	선종-한국찬술
42	雲水壇	木板本	未詳	般若菴	仁祖 7年(1639)	예찰-일반의례
43	雲水壇	木板本	未詳	般若菴	仁祖 7年(1639)	예찰-일반의례
40	雲水壇	木板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前後]	예찰-일반의례
43	雲水壇	木板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前後]	예찰-일반의례
17	禮念彌陀道場儀法	木板本	未詳	未詳	[麗末鮮初]	예찰-일반의례
1	禮念彌陀道場儀法	木板本	未詳	未詳	[成宗年間] 刊 [朝鮮朝前期] 翻刻	예찰-일반의례
18	禮念彌陀道場儀法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後期]	예찰-일반의례
38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木板本	同福	安心寺	宣祖 2年(1570) 刊 後刷	예찰-식시의례
55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木板本	未詳	未詳	孝宗 10年(1659)	예찰-식시의례
54	[諸般文]	木板本	未詳	未詳	燕山君 2年(1496)	예찰-식시의례
34	[諸般文]	木板本	潭陽	龍泉寺	宣祖 9年(1576)	예찰-식시의례
56	誠初心學人文	木板本	順天	松廣寺	宣祖 40年(1607)	선종-한국찬술
35	誠初心學人文	木板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以後] 刊 後刷	선종-한국찬술
3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木板本	여주	취암사	高麗禑王 4年(1378)	선종-한국찬술
15-2	川老金剛經	木板本	未詳	未詳	太宗 10年(1410)	경전-반야부

1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木板本	未詳	未詳	世宗年間(1418-1450)	경전-경집부
5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木板本	羅州	雙溪寺	明宗 2年(1547)	경전-위경
37	月印釋譜	木板本	淳昌	無量山屋	明宗 14年(1559) 翻刻	경전-한국불교
15-1	南明泉頌永嘉證道歌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前期]	선종-한국찬술
13	夢山和尚六道普說	木板本	未詳	未詳	[朝鮮朝前期]	선종-중국찬술
3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木板本	未詳	未詳	[壬辰倭亂以前]	예참-천도의례
19	禪家龜鑑	木板本	未詳	未詳	光海君 2年(1610)	선종-한국찬술
39	佛說預修十王生七經	木板本	未詳	未詳	睿宗 1年(1469) 刊 [壬辰倭亂前後] 翻刻	예참-천도의례

위 <표 1>과 <부록 1>의 내용을 분석하면 58 종의 자료는 모두 목판본이며 그 중 간기가 있는 것은 고려 禪王 4年(1378)부터 宣祖 41年(1608) 사이의 것이고, 간행기록이 없는 것은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에 해당하며 이는 팔상전이 조성된 肅宗 32年(1706) 이전의 것들이다.

이들을 크게 경전류, 선종류, 예참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경전류

경전류는 경집부 10종, 법화부 8종, 반야부 1종, 한국불교 1종, 위경 1종으로 21종이다.

4.1.1 경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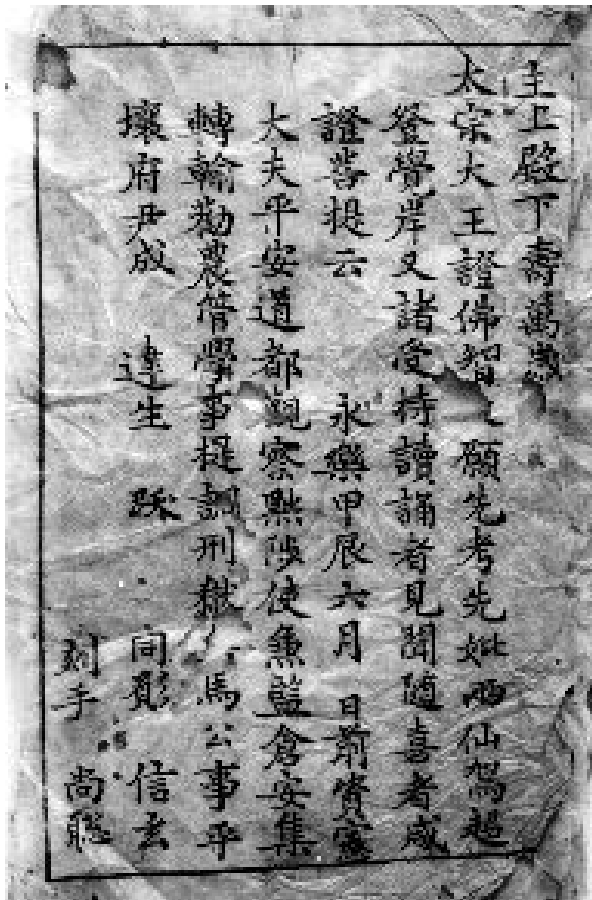
경집부는 「六經合部」(표 1 및 부록 1의 44-52)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줄여서 楞嚴經 이라 함」(표 1 및 부록 1의 16)이 있다.

「六經合部」(표 1 및 부록 1의 44-52)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엄신주,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여섯 가지 경전을 모아 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六經合部」는 본래 崔斯立 필서의 판본이 있었으나 오래되어 완결(剝缺)이 생겨 보기 어려움에 世宗 6年(1324) 성달생(成達生)이 평안도관찰출척사로 있었을 때 해서한 판서본을 새겨 찍어 낸 것이 그의 초간본이다. 世宗 22年(1440) 정암(定菴)의 시주로 화악산(華岳山) 영제암(永濟菴)에서 世宗 6年本을 저본으로 번각하였고, 成宗 3年(1472) 6월 仁粹大妃가 대대적으로 인정할 때 金守溫의 발을 甲寅小字로 찍어 붙여 「六經合部」 500부를 인출하였는데 이들 계열의 판본들이 전래되고 있다. 불갑사의 팔상전에서 발굴된 9종의 경전들은 世宗 6年(1424)에 평안도 출척사 成達生 書并跋을 붙여 전라도 고산 安心寺에서 간행한 고판본을 저본으로 하여¹⁵⁾ 번각한 것(표 1 및 부록 1의 44)이다. <그림 2>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無魚尾이다. 다른 8종은 이 번각본을 저본으로 15세기 전후에 번각한 것들(표 1 및 부록 1의 45-52)이다.

「楞嚴經」(표 1 및 부록 1의 16)은 禪을 닦아 인간의 감각작용에서 유발되기 쉬운 온갖 煩惱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要義를 실한 경전이다. 당 시대 般刺蜜帝가 번역하고 송나라 戒環이 해석한 10권본이다. ‘대불정수릉엄경’, ‘수릉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일컫고 있다. 능엄경은 고려 말부터 조선조 초기에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되고 있다. 고려 高宗 22年(1235)에 이승광이 崔瑀의 복을 빌기 위해 새긴 능엄경목판 139판(국보206-3호), 고려 恭愍王 21年(1372) 安城 靑龍寺에서 간행된 판본에 의거하여 후인된 목판본 5권 1책본(보물 제 698호, 699호), 太宗 1年(1401)에 信聰의 필서체로 특대자를 쓰게 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10권 5책본(보물 제759호, 제959호), 世祖 7年(1461) 을해자로 찍은 활자본(보물 제 760호, 761호, 762호, 763호, 1049호), 世祖 7年(1461) 을해자로 찍은 활자본을 교정한 것에 준거하여 世祖 8年(1462)에 간행한 목판본 10권 10책(국보 제212호, 보물764호), 이 판에서 후인한 것(보물제765호), 世祖 11年(1465)에 을유자로 인출한 활자본(보물 제1219호), 成宗 19年(1488) 충남 홍산 萬壽山 無量寺에서 朴耕이 필서하여 목판으로 찍은 것(보물 제1248호) 등이 남아 있다. 영광 불갑사

15) “永樂二十二年(世宗6, 1414)刊 平安道觀察使黜陟使 成達生書并跋”의 六經合部 初刊本



<그림 2> 「六經合部」 世宗 6년(1424)刊 翻刻 高山安心寺
成達生跋文

팔상전본은 세종14(1432)에 성달생이 필서한 淨書本을 바탕으로 세종25년(1443)에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권1-3만 남아 있다.¹⁶⁾ 이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11行22字이며 版心上에는 ‘楞’, ‘卷次’, ‘張次’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3>

16) “正統八年癸亥(世宗25, 1443) 五月日刊 妙法蓮華經 昌寧成達生謹跋”



<그림 3> 「楞嚴經」世宗 25년(1443) 高山 花岩寺 卷2 부분

4.1.2 법화부

법화부는 「妙法蓮華經」(표 1 및 부록 1의 2, 5-11)이 8종이 발굴되었다. 태종5년(1405) 안심사본의 후쇄본, 세종25년(1443) 화암사본의 후쇄본과 번각후쇄본, 향진손서체본의 후쇄본 2종, 간경도감번각본, 조선초기판의 번각본 등이 주로 발굴되었다.

① 太宗 5년(1405) 안심사본의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5)이 있다. 太宗 5년(1405)의 안심사본은 권말에 붙어 있는 權近의 발문에 의하면, 조계종의 大選 信希 등은 법화경을 誦持한지가 오래되자, 太宗 5년(1405)에 중자로 써서 필사해 줄 것을 성달생에게 요구하였다, 成達生은 당시 서거한 先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成概와 더불어 필사하고 도인 信文이 가지고 가서 전라도 雲梯縣 도솔산 안심사에서 개판하였다.¹⁷⁾ 이 책의 판식은 上下單邊에 10行20字이며 版心은 없고 접은 中縫에 ‘法’자와 卷次표시, 하단에 張次표시가 있다. 글자는 독특한 서체의 중자로 아름답게 필사되었고 도각도 정교로운 편이다. 불갑사 팔상전의 이 책은 안심사본의 후쇄본으로 권4-7만 남아 있지만 깨끗한 편이다.

② 世宗 25년(1443) 화암사본의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8)과 번각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9와 10)이 있다. 世宗 25년(1443)의 화암사본은 太宗 5년(1405)의 안심사판과 世宗 4년(1422) 대자암판의 완결이 있자, 도인 海云이 함길도 절제사로 있던 성달생에게 부탁하여 1권만 필사되고, 제2-5권은 任孝仁에게, 제 6-7권은 그의 사위인 曹橐에게 청하여 분담 필사케 한 것을 세종 25년에 전라도 花岩寺에서 간행한 것이다.¹⁸⁾ 惠信의 감독하에 尙闇이 교정하고 각수인 信孝, 海南, 法澄, 信戒 등이 판각에 간여하여 간행한 것이다. 불갑사 팔상전본중 <표 1> 및 <부록 1의 8>은 후쇄본이 혼입되어 있는 판본인데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고 7권2책본으로 남아 있다. <표 1> 및 <부록 1의 9와 10>은 번각후쇄본으로 권1-3만이 남아 있으며 판각상태가 양호하질 않다.

③ 조선초기에 간행한 黃振孫書體本은 그 후쇄본 <표 1> 및 <부록 1의 6>과

17) 太宗5年 安心寺本 法華經末尾 權近의 鑄字跋

“無上妙法取譬蓮華 受記証果 固無漸次 乃諸佛之本宗也 戒環疏解 精深簡切 觀者瞭然 易曉其義 故 歷代奉 此法者 皆重之 …”

18) 世宗25年 花岩寺本 卷末 所收 成達生 跋文

“…己酉(1429)春 道人海云來訪… 又云曾刊所書注法華板本利缺難印亦宜改書…壬子正月 受威吉道節 制之令 往吉州… 云師親往取來 又請寫蓮經 不敢固拒勉從而書一卷… 乙卯四月得代來京師 又請懇 眼暗未果 請諸二三子 皆不肯從 時正朗任公孝仁 丁優在閑 再請而勉從之 書後秩四卷 又贊郎殿直曹橐 書二卷 余亦畢書云 師惠信等繡之梓 壬戌春告訖 …”

변각본 <표 1> 및 <부록 1의 7>이 남아 있다. 황진손서체본은 판본이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물어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우선 <표 1> 및 <부록 1의 6>은 권1-3의 1책본이고 권3의 말에는 黃振孫이 쓰고, 禪宗大禪師 思濟이 하 수십명의 시주질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쇄본이지만 판각상태는 깨끗하다. <그림 4> <표 1 및 부록 1의 7>은 조선조 초기본을 변각한 것으로 권2-3의 1책만이 남아 있다. 권3의 말에는 黃振孫이 쓰고, 玉龍寺大師 信敏, 安國寺大師 義珪, 福吳寺大師 日成, 川嚴寺大禪師 田心, 松林寺禪師 海惠, 廣安寺禪師 善瑗, 月菴寺大禪師 信頓 이외의 여러 스님들이 관여되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刊經都監本の 변각본(표 1 및 부록 1의 2)이 남아 있다. 간경도감본은 송의 戒環이 주해하고 一如가 집주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 간경도감에서 국역하여 새긴 판에 찍은 5권5책본이다. 책머리에 세조 9년(1463) 9월에 鈴川府院君 尹師路



<그림 4> 「妙法蓮華經」 黃振孫書體本 [朝鮮朝前期]刊 後刷 卷首 및 卷1 부분

등이 이 譯本을 새겨 장정하여 올린 上箋文에 이어 奉敎雕造한 19인의 직함이 열거되고 있다. 본문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었으며 한자음은 東國正韻식으로 표시하고 있어 당시의 국어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강태영의 소장본으로 1989년 8월 1일에 권제 1·3·4의 3책이 보물 제1010호로 지정되고, 1995년 4월 3일에 권제 5·6의 2책이 추가 지정되었다.¹⁹⁾ 영광 불갑사 팔상전 발굴본은 이 간경도감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며 권말 낙장의 1책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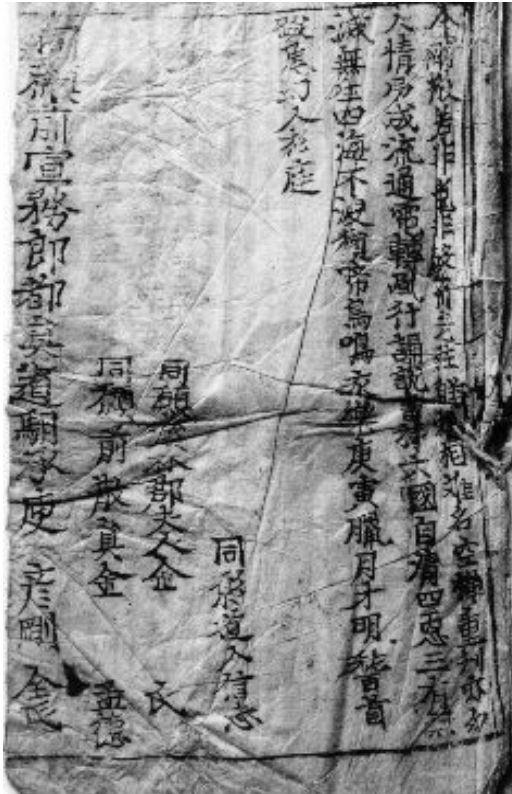
⑤ 조선 초기판본을 번각한 것(표 1 및 부록 1의 11)이 남아 있다. 권 4-6의 1책이 남아 있으며 파손이 심하고 낙장이 있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10행 20자이며 판심상에 ‘法’, ‘卷次’가 들어 있다. 권수에 변상도 3장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장에 化主 信用을 비롯하여 시주질이 기록되어 있다.

4.1.3 반야부

『川老金剛經』(표 1 및 부록 1의 15-2)은 姚秦의 鳩摩羅什이 번역한 한문본에 송의 治夫川老가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주해한 것이다. 고려본으로는 고려 禡王 13년(1387) 京師의 金沙寺에서 禡王謹妃의 시주로 간행된 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조선 초기의 판본은 그간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太宗 10년(1410)에 간행된 판본의 발굴되어 주목하게 한다. 이 책의 머리에는 金剛經啓 清·請四菩薩·發願文이 있고, 본문과 협주 뒤의 권말에는 般若眞言·金剛心眞言·補闕眞言·靈驗讚이 붙어 있다. 이 판본은 본래 卷子本의 형식으로 판각된 것을 線裝으로 개장한 것이다. 판의 형식은 上下單邊·無界·無板心이고 한판에 15行16字 註雙行으로 새겨진 것인데, 앞장은 8行16字, 뒷장은 7行16字가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문화재 제4권: 불교문화재(2). 2003. pp. 206-207에 의하면, 1989년에 지정된 것은 결장이 생기고 일부 파손되어 문자의 일부를 잃었지만 精印本이어서 가려 지정한 것이며, 뒤에 지정된 것은 薰精이 섞인 열품 楮紙에 후인하여 인쇄가 精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후인본류는 다른 곳에도 많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뒤에 추가 지정하여 합친 것이다.

되도록 접어 線裝으로 고친 것이다.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판본은 원판본의 번각인 고려본을 다시 중간한 것으로 권말에 太宗 10년(1410)에 쓴 발문이 붙어 있다.²⁰⁾<그림 5> 이 발문의 출현으로 보물721호에 권말에 붙어 있는 李穡이 禪王 13년(洪武20, 1387) 7월에 쓴 『川老金剛經』의 발문은 다른 판본의 것이 잘못 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¹⁾



<그림 5> 『川老金剛經』太宗 10년(1410) 跋文

20) 金剛般若 非色非聲 川老註解難相難名 空禪重刊亦勿人情弔成流通電轉風行誦說 書持六國 自清四恩三有無滅無生 四海不波 遠帝鳥鳴永樂庚寅(太宗10, 1410)臘月才明稽首跋尾幻人杉庭 同願道人 信志

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문화재 제4권: 불교문화재(2). 2003. 88-89.

4.1.4 한국불교

『月印釋譜』(표 1 및 부록 1 의 37) 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 협주세분을 넣은 작품으로 世祖 5년(1459)경에 간행된 책이다. 그중 권23은 부처님의 일대기 중 전법과 열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전법부분은 『法苑珠林』 卷30 住持篇 第22의 菩薩部, 羅漢部, 僧尼部, 天王部, 鬼神部에서 그 요체가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싣고, 미륵부분은 협주세문으로 처리하여 『佛說彌勒大成佛經』의 내용을 완역하여 넣었다. 열반부분은 『석가보』 권2, 4와 『目連經』 및 『盂蘭盆經』을 저경으로 하고 있다. 권23은 무량사본 번각본(63張 ~ 98張),²²⁾ 초판본(16張 ~ 106張)²³⁾이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무량사 번각본 권23은 복장물에서 假綴本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부분적인 손상은 있지만 1장 후면만이 결락되었으며 明宗 14년(1559)의 순천 구악산 無量寺에서 개판된 번각본으로는 판각상태가 양호하다. (그림 6-1 ~ 6-2)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0.5×17.0cm, 有界, 半葉 7行14字, 注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전체크기는 29.5×20.5cm이다. 願主는 希信이며, 宗師秩에는 선종판사인 普雨, 休靜 선사와 교종판사인 義尙 중덕이 관여하였다. 실질적인 업무감독은 玄緝이고 각수질은 一訓, 道軒, 慈雲, 守軒, 洗雲, 妙雲, 允器, 木手, 淡月 등의 각수가 관장하였다. 번각본이긴 하지만 완질본이어서 주목케 하며 초판본의 앞부분중 일실되었던 15장을 복원하고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²⁴⁾

22) 閔泳珪, “月印釋譜第二十三殘卷,” (서울: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63), 『東方學志』 第6輯.

23) 姜順愛,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卷23에 관한 연구; 그構成과底經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서지학회, 1992), 『季刊書誌學報』 第8號, 3-26.

24) 姜順愛, “靈光 佛甲寺 所藏의 無量寺 翻刻本 『月印釋譜』卷23 卷首部分에 관한 연구-제 1~15장을 중심으로-,”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2), 『伽山學報』 第10 號 11-49.



<그림 6-1> 「月印釋譜」 권23 明宗 14년(1559)
順天 無量寺 권수 부분



<그림 6-2> 「月印釋譜」 권23 明宗14년
(1559) 順天 無量寺 9장a

4.1.5 위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표 1 및 부록 1의 53)은 世宗 25년(1443)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明宗 2년(1547)에 나주 쌍계사에 번각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5字이며 版心上에는 '恩과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雲學이 감독을 하고, 각수는 瞿曇, 敬熙, 義幹이며 연판은 性暉가 담당하였다.

4.2 선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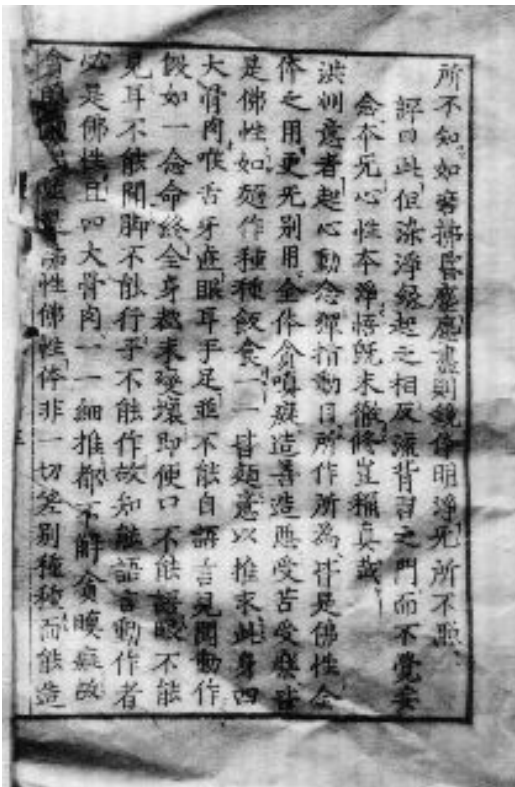
선종류는 한국찬술이 10종, 중국찬술이 14종으로 24종이다.

4.2.1 한국찬술류

한국찬술관계서로는 「法集別行錄并私記」(표 1 및 부록 1의 4, 12-2, 20, 24-25), 「誠初心學人文」(표 1 및 부록 1의 35, 56),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표 1 및 부록 1의 3), 「南明泉頌永嘉證道歌」(표 1 및 부록 1의 15-1), 「禪家龜鑑」(표 1 및 부록 1의 19)이 있다.

① 「法集別行錄并私記」(표 1 및 부록 1의 4, 12-2, 20, 24-25)는 고려중기 보조국사 知訥이 당의 종필이 지은 법집별행록을 간략하게 줄여서 싣고, 여러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을 인용하여 참된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처음 지눌의 제자 惠謙이 판각하여 유포하였으나 그간 국내에 전본이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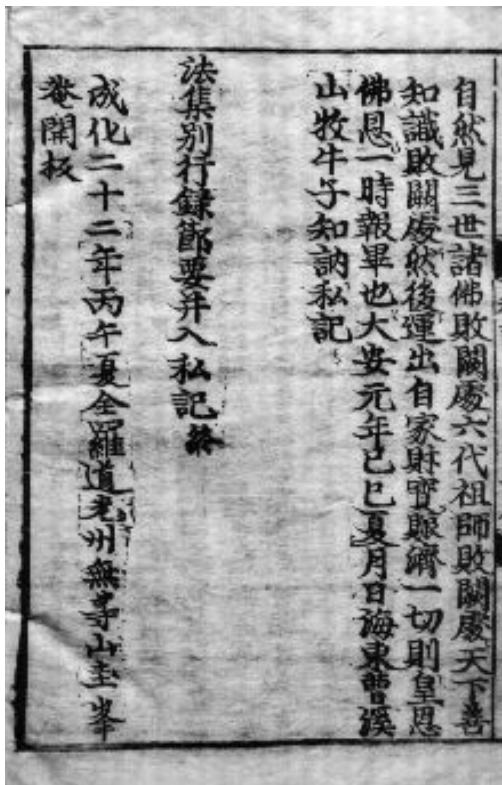
팔상전의 복장물중 고려말의 정각본(표 1 및 부록 1의 4) 1책은 高麗 熙宗 5년(1209)己巳 夏月일에 쓴 知訥의 私記가 붙어 있고, 판각이 깨끗하여 혜심이 판각한 정각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여겨진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11行21字이며, 版心上에는 '私記' 및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7> 成宗 17년(1486)에 간행



<그림 7> 「法集別行錄并私記」 高麗末期 3장a

된 全羅道 光州의 無等山 圭峯菴本(표 1 및 부록 1의 12-2)은 大傑이 주도하고 善牛가 목판을 만들고 糾明, 信悟, 義敬이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이고 권말에는 大傑 의 발문과 간기 및 시주질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8>

宣祖 4년(1571)의 平安道 祥原의 大靑山 解脫寺本(표 1 및 부록 1의 20)은 成宗 17年本을 저본으로 하여 云熙가 감독을 하고 性眞과 智悅이 판각하여 간행하여 深谷寺에 移留한 판본이다. 판식은 成宗 17年本과 같고, 권말에는 간기 및 시주질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成宗 17년(1486) 光州 圭峯菴 刊記

宣祖 37년(1601)의 智異山の 能仁菴本<표 1 및 부록 1의 24>과 그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25)이 있다. 능인암본은 寬印, 大華, 惠寬, 眞正, 應俊, 勝熙, 覺善, 一浩, 純(淳)玉, 玄鑑, 眞宜(義), 坦昱, 双淳, 圓鑑, 思允, 印和 의 16명의 각수와 연관은 良機를 동원하여 판각하였고, 覺性이 교정을 하여 능인암에서 간행한 후 쌍계사에 移鑄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9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표 1 및 부록 1의 25)는 능인암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후에 새긴 후쇄판이다.

② 「誠初心學人文」(표 1 및 부록 1의 35, 56)은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이 고려 熙宗 元年(1205) 겨울에 修禪寺(지금 순천의 송광사)의 낙성과 함께 동사의 일용청규로 선포한 것이다. 조선 太祖 6년(1397)에 尙聰선사가 왕명을 받들어 전국사원의 청규법으로 시행하게 하면서 사미과의 교재로 채택되었다.²⁵⁾ 이의 판본으로는 고려말기부터 20여종의 간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상전 발굴물중 순천 송광사의 중간본(표 1 및 부록 1의 56)은 宣祖 40년(1607) 應善의 감독하에 雲衲學明이 판하본을 쓰고, 義岡이 연관을, 心印, 性玉, 智海, 自敬이 판각을 담당하였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上下內向1,2葉花紋魚尾이고 권말에는 「蒙山和尚法語略錄」을 합철하였다. 다른 하나(표 1 및 부록 1의 35)는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판본에서 후쇄한 것인데 권말에 墨書識記를 참조하면 己丑年 全州 南嶺 母岳山 白蓮庵에서 元圭, 元敏, 元下가 관련되어 인경한 판본으로 여겨진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混入黑魚尾이다.

③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표 1 및 부록 1의 3)은 禪王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경한이 주자로 찍어냈고, 권하 말미에 “宣光七年丁巳(禪王3, 1377) 七月日淸州牧外 興德寺鑄字印施”의 印記가 있는 책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⁶⁾ 영광 불갑사의 팔상전본은 그 이듬해인 禪王 4년(1378)에 驪州 鷲巖寺에서 法隣의 주도로 一庵, 禪和, 天亘 등이 판하본을 쓰고, 宗乾, 昌如, 信命 등이 판각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25)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서울: 東國大學校 釋林會, 1983). 30-31.

26) 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影印解題本)」(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그림 9>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禪王 4년(1378) 驪州 驚巖寺 卷上

판각은 깨끗한데 일부 낙장이 있어 2001년 6월 5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9> 이와 같은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보물 제1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④ 「南明泉頌永嘉證道歌」(표 1 및 부록 1의 15-1)는 당의永嘉眞覺大師(647~713)가 禪宗의 慧能을 만나서 깨달은 진리를 읊은 노래에 송의 南明禪師 法泉이 이어 증도의 깊은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고려 高宗 26년(1239)에 중서령 崔怡가 官鑄活字本을 重雕하여 활자본의 실마리가 되는 목판본

으로서 널리 알려진 책이다. 이번의 발굴본은 조선조 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판식은 左右雙邊, 無界, 10行19字, 上黑魚尾이다

⑤ 「禪家龜鑑」(諺解)(표 1 및 부록 1의 19)는 조선 중기의 고승 休靜이 明宗 19년(1564)에 선종의 요긴한 지침을 모아서 짓고 선조12(1579)에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諺解本과 漢文本이 있다. 「禪家龜鑑」의 母本이 되는 「三家龜鑑」은 儒家, 道家, 佛家의 龜鑑을 합본한 것이데, 이 중 佛家龜鑑의 내용을 언해본으로 간행하였고, 이를 초략하여 「禪家龜鑑」으로 편성한 것이다.²⁷⁾ 이책의 판본은 초판본을 비롯하여 유점사, 송광사, 용복사 등 여러 사찰본이 전하는데,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본은 光海君 2년(1610)에 松廣寺에서 인출한 책이다.

太華, 道梅, 金千貴, 應信, 智賢, 寶應, 靈應, 敬宗, 金乃從이 판각하고 善修가 교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현재 송광사에 판목이 유관되고 있다.

4.2.2 중국찬술관계서

중국찬술관계서로는 「大慧普覺禪師書」(표 1 및 부록 1의 14, 28-33), 「禪源諸詮集都序」(표 1 및 부록 1의 12-1, 21-23, 26-27) 「夢山和尚六道普說」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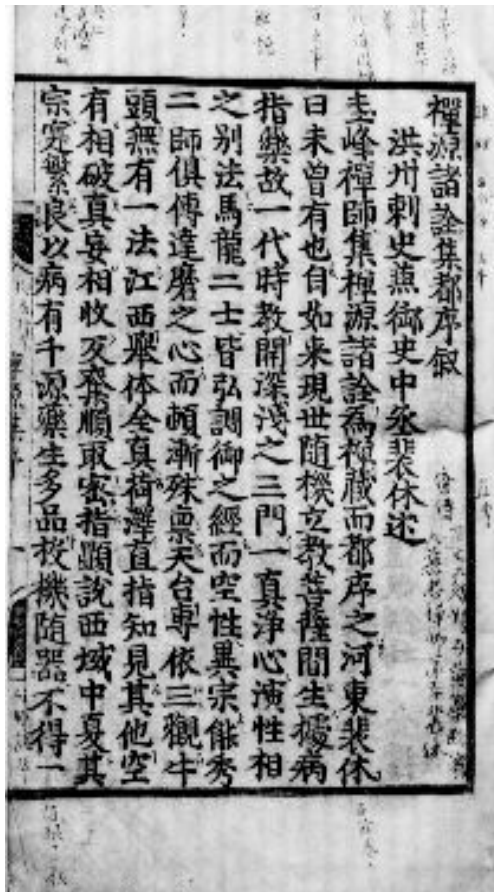
① 「大慧普覺禪師書」(표 1 및 부록 1의 14, 28-33)는 대혜서장이라고도 하는데, 송의 대혜 宗杲선사가 간화선법에 바탕을 두고 사된 소견을 물리치고 바른 소견을 가르치기 위해 42인에게 준 62장의 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불교 강원의 사집의 한 과목이다. 이 책은 고려말 知訥의 제자 志談과 覺全이 자비를 부담하여 禪王 13년(1387)에 간행한 것과 같은 해 고달산 佛峯寺에서 玄會가 주도하여 간행한 판본이 있다. 조선조에는 중종조에 이와는 판형을 달리하여 8행 18자의 형식으로 中宗 20년(1525)의 聞慶 深源菴本, 中宗 34년(1539)에 도인 靈祉가 敬希, 信崇 등의 각수를 동원하여 간행한 지리산 南臺庵本이 있는데, 불갑사 팔상전 발굴본 중에서는 문경 심원암의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32)과

27)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동국대박물관, 2001).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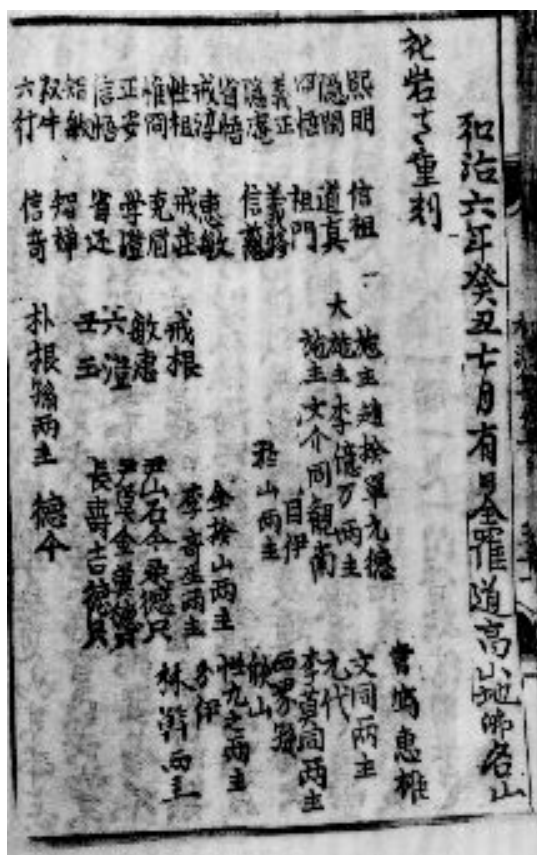
지리산 南臺庵의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33)이 나왔다. 두 책의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또한 明宗 1년(1546)의 鶴鳳山 石頭寺本(표 1 및 부록 1의 14)은 毅宗 20년(1166)에 徑山 妙喜菴에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이고, 版心 上에는 ‘書’와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宣祖 3년(1570)의 新興寺本(표 1 및 부록 1의 28)은 권말에 禪王 13년(1387)에 쓴 李穡의 발문이 있고,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1,2葉花紋魚尾이다. 宣祖 8년(1575)의 安心寺本(표 1 및 부록 1의 30)은 行思스님의 감독하에 戒岡 太顓 性淳 印軒 法寬 法仁, 守玄이 판각을 하고, 전 海印寺 주지였던 玄修스님을 교정을 하여 간행하였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混入黑魚尾(間混上黑魚尾)이다. 임란이후본(표 1 및 부록 1의 29)은 간행처를 알 수 없는 1책의 판본이다.

② 「禪源諸詮集都序」(표 1 및 부록 1의 12-1, 21-23, 26-27)는 불교강원의 사집과의 한 과목이다. 이 책은 당의 圭峰 宗密선사가 선교일치를 제창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전래는 碧岩覺性(1575-1660)의 「禪源集都中決疑」 1권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의 연구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벽암이전에 수입된 것만은 틀림없다.²⁸⁾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물에서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成宗 24년(1493) 고산의 花岩寺 重刻本(표 1 및 부록 1의 12-1)이다. 상하 1책으로 판각이 깨끗하고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그림-10-1 ~ 10-2) 다음은 中宗 32년(1537) 晉州의 新興寺 개판본(표 1 및 부록 1의 21)이다. 이 책 역시 판각은 깨끗하며 권말에 간기와 시주질이 있고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明宗 8년(1553)의 金剛山 楡岾寺本(표 1 및 부록 1의 23)은 性仁의 주도로 會修가 연판을 하고 崇贊이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각은 깨끗하고 판의 형식은 四周雙邊,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宣祖 4년(1571)의 海州 神光寺本(표 1 및 부록 1의 22)은 天心과 通庵이 판각하여 간행하였으며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28)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서울: 東國大學校 釋林會, 1983). 105.



<그림 10-1> 「禪源諸詮集都序」 成宗 24년(1493)
高山 花岩寺 重刻 卷首



<그림 10-2> 「禪源諸詮集都序」成宗 24년(1493) 高山
花岩寺 重刻 刊記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宣祖 41년(1608)의 順天 松廣寺本(표 1 및 부록 1의 26)은 湛玄의 주도로 太華, 覺禪, 性玉, 日浩, 玄楫, 性梅, 智海, 應行, 印和, 思益이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上下內向²⁾, 3 葉花紋混入黑魚尾이다. 이의 후쇄본(표 1 및 부록 1의 27)이 남아 있다.

③ 「夢山和尚六道普說」(표 1 및 부록 1의 13)은 원의 몽산화상이 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의 육범과 성문, 연각, 보살, 불등의 사성을 합한 10계를 설한 책이다.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成宗 21년(1490)에 황해도 瑞興 慈悲嶺寺 개판본이 있고,²⁹⁾ 이후 16세기의 판본들이 있는데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본은 기존의 판본들과는 다른 계통으로 조선조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간기를 알 수 없다.

4.3 예참류

예참류는 일반의례 7종, 식시의례 4종, 천도의례 2종으로 13 종이다

4.3.1 일반의례

일반의례는 「雲水壇」(표 1 및 부록 1의 40, 42, 43) 4종과 「禮念彌陀道場懺法」(표 1 및 부록 1의 1, 17, 18) 3종이 있다.

① 「雲水壇」(표 1 및 부록 1의 40, 42, 43)은 조선중기의 고승 休靜이 불교의식의 간소화를 위해 선승의 일용행사집으로 만든 것이다. 宣祖 40년(1607)에 송광사에서 초판이 간행되었고, 仁祖 5년(1627)에는 전라도 진안의 盤龍寺에서 간행된 후 20여종이 개판되었다. 불갑사의 팔상전본 중에서는 仁祖 7년(1636)의 天冠山 般若菴本(표 1 및 부록 1의 42, 43)이 2종이 있는데, 이 책은 朴根礪이 필서하

29)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第6號(1997).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12.

고 淳應, 認敏, 慧能, 釋仁, 瑞環이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四周單邊, 有界, 7行15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인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표 1 및 부록 1의 40>은 권말의 3장이 결락되어 간기를 알 수 없고,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7行15字, 大黑口, 上下內向1,2,3 混葉魚尾이다.

② 「禮念彌陀道場懺法」(표 1 및 부록 1의 1, 17, 18)은 원의 王子成의 편집으로 극락정토의 왕생을 기원하여 아미타불을 예참하는 도량의식문집이다. 국내 판본 중에서는 成宗 5년(1474)에 세조 비인 정희대비가 손부인 공혜왕후 한씨가 죽자 명복을 빌고 먼저 죽은 세조, 의경대왕, 예종을 추앙하여 간행한 것으로 인수대비, 인혜대비등도 관계한 것으로 10권2책이 보물 949호로 지정된 바 있다.³⁰⁾ 불갑사의 팔상전의 복장물은 우선 成宗 5년(1474)이 인수대비가 주관하여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표 1 및 부록 1의 1)이 있다. 이와 다른 계열의 판본으로는 麗末鮮初에 번각한 것(표 1 및 부록 1의 17)은 권1-4만 남아 있는데 崇慶 2년(1213)의 舊序가 붙어 있고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朝鮮朝後期에 번각한 판본(표 1 및 부록 1의 18)은 義天이 판하본을 써서 판각한 것으로 권5-10만 남아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4.3.2 식시의례

식시의례에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표 1 및 부록 1의 36, 55) 2종과 「諸般文」(표 1 및 부록 1의 34, 54) 2종이 있다.

①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표 1 및 부록 1의 36, 55)은 井行이 사찰대중이 默言으로 바루공양할 때 默言作法과 食堂作法의 절차를 실어 편집한 책이다. 팔상전의 복장본중 宣祖 2년(1570)의 同福 安心寺本(표 1 및 부록 1의 36)은 性眞이 판각하여 간행하였으며,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孝宗 10년(1659)의 간본(표 1 및 부록 1의 55)은 宣祖 1년(1568)에 간행

30) 文化財管理局,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서울: 동관리국, 1988).

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인경한 것으로 권말에 墨書識記가 있고,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이다.

② 「諸般文」(표 1 및 부록 1의 34, 54)은 편자미상의 자료로 사찰에서 행해지는 일상의 의식문을 한데 모은 것으로 여러 부처님, 보살, 성중, 혼령 등을 칭하여 공양하는데 필요한 의식절차 및 청문을 비롯하여 그밖에 불상에 대한 점안문, 사자에 대한 장례문, 국왕에 대한 축원문 등을 모았다. 팔상전에서 나온 판본은 燕山君 2년(1496)의 간행본(표 1 및 부록 1의 54)은 결락이 있긴 하지만 초기의 간본에 해당되어 그 가치가 크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上2葉花紋魚尾이다. 宣祖 9년(1576)의 潭陽 龍泉寺本(표 1 및 부록 1의 34)은 道彦比丘의 주도로 敬熙가 鍊板을 하고, 斗雲이 판각을 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無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4.3.3 천도의례

천도의례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표 1 및 부록 1의 38) 1종과 「佛說預修十王生七經」(표 1 및 부록 1의 39) 1종이 발굴되었다.

①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표 1 및 부록 1의 38)는 水陸齋를 지내는데 필요한 제반의식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다. 불갑사의 팔상전본은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추정되지만 간기가 일실되어 가치가 적은 편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6行15字이며 版心上에는 ‘水陸’ 및 ‘張次’가 들어 있다.

② 「佛說預修十王生七經」(표 1 및 부록 1의 39)은 시왕경이라고도 하는데 唐의 藏川 이 사후 저승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 시왕의 위덕을 빌려서 10재를 구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글이며 특히 변상도는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왕과 그 권속 및 고통받는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10여종이 간행되었는데 팔상전본은 睿宗 1년(1469)의 간본을 壬辰倭亂前後에 번각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 無界, 8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5. 八相殿 腹藏典籍의 價値

불갑사 팔상전에서 발굴된 복장전적은 그 시사하는 바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첫째, 肅宗 32년(1706)에 조성된 팔상전의 복장자료는 57종이지만, 합철된 것을 별도의 경전으로 보면 60종이다. 그 중 간기가 있는 것은 고려 禔王 4년(1378)부터 宣祖 41년(1608) 사이의 것이고, 간행기록이 없는 것은 高麗 末期부터 朝鮮 後期에 해당하며 숙종 32년 이전의 것이다. 이들 자료는 팔상전의 복장불사를 위해 인근의 高山, 順天, 光州, 潭陽, 羅州, 淳昌 등의 전라도 지역 및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한 판본들이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제는 경전류, 선종관계, 예참류 자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전류 자료중에서 「楞嚴經」(표 1 및 부록 1의 16)은 世宗 14년(1432)에 성달생이 필서한 淨書本을 바탕으로 世宗 25년(1443)에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권 1-5만 남아 있지만, 조선초기의 판본으로는 매우 귀한 책이다. 「川老金剛經」(표 1 및 부록 1의 15-2)은 고려 禔王 13년(1387)에 京師의 金沙寺에서 禔王謹妃의 시주로 간행된 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판본은 원판본의 번각인 고려본을 다시 중간한 것으로 권말에 太宗 10년(1410)에 쓴 발문이 붙어 있다. 조선 초기의 판본은 그간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太宗 10년(1410)에 간행된 판본의 발굴되어 주목하게 한다. 이 발문의 출현으로 보물721호에 권말에 붙어 있는 李穡이 禔王 13년(洪武20, 1387) 7월에 쓴 「川老金剛經」의 발문은 다른 판본의 것이 잘못 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량사 번각본 「月印釋譜」권 23(표 1 및 부록 1의 37)은 明宗 14년(1559)의 순천 구악산 無量寺에서 개판된 번각본으로는 판각상태가 양호하다. 번각본이긴 하지만 완질본이어서 주목케 하며 초판본의 앞부분 중 일실되었던 15장을 복원하고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셋째, 선종류 자료 중에서 고려말의 정각본인 「法集別行錄并私記」1책(표 1 및 부록 1의 4)은 高麗 熙宗 5년(1209) 己巳 夏月일에 쓴 知訥의 私記가 붙어 있고, 판각이 깨끗하여 해심이 판각한 정각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매우 귀중한

판본에 해당한다. 또한 成宗 17년(1486)에 간행된 全羅道 光州의 無等山 圭峯菴本(표 1 및 부록 1의 12-2)은 大傑이 주도하고 善牛가 목판을 만들고 糾明, 信悟, 義敬이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며 조선초기의 판본으로는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표 1 및 부록 1의 3)은 禪王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경한이 주자로 인출한 책을 저본으로 그 이듬해인 禪王 4년(1378)에 여주 驚巖寺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판각은 깨끗한데 일부 낙장이 있어 2001년 6월 5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넷째, 예참류 자료들은 모두 의례에 관한 것으로 두드러진 것들은 없으나 16세기~17세기의 자료들 중 기존의 판본들과 다른 것들이 몇 가지 발굴되어 의미가 있다.

6. 結 論

영광 불갑사 팔상전에서 나온 복장전적에 대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갑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신라시대 元聖王 시에 중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覺眞國師(1270-1355)에 의해 번성하였다. 조선조는 정유재란이후 인조조의 法稜, 海稜, 照岩, 효종·숙종조, 영조조의 采隱, 晴峯, 순조조의 得性, 고종조의 雪竇, 奉珙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창불사가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

2) 영광 불갑사의 八相殿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불갑사 팔상전에는 釋迦佛을 본존으로 해서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좌상으로 모시고, 그 옆으로 아난과 가섭존자를 입상으로 모셨으며 나한전에 있던 16羅漢像도 옮겨 봉안하면서 석가삼존불을 양쪽에서 시립하고 있는 아난·가섭존자와 보살형으로 표현된 제석·범천상 사이의 좌우 벽면에 卍자형을 이루며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밖에 시자상, 사자상, 인왕상을 각각 2분씩 모셨다. 팔상전은 英祖 39年(1763)에 중건하였고, 純祖 22年(1822)에 세 번째 중창이 이루어졌다.

3) 팔상전의 자료들은 팔상전의 복장자료는 57종이지만, 합철된 것을 별도의 경전으로 보면 60종이다. 간기가 있는 것은 고려 禡王 4년(1378)부터 宣祖 4년(1608)사이의 것이고, 간행기록이 없는 것은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에 해당하며 이는 팔상전이 조성된 肅宗 32년(1706)이전의 것들이다. 경전류 중에서는 「六經合部」9종인데 世宗 6년(1424)간행의 후대 번각본들이 중심이었고, 「妙法蓮華經」은 8종인데 조선 초기판본들의 번각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楞嚴經」(1443), 「川老金剛經」(1410), 「月印釋譜」권23(1559 翻刻)은 매우 주요한 판본들이고,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7 翻刻)이 발굴되었다. 선종류는 「法集別行錄并入私記」(1209, 1486, 1571, 1601, 1601 後刷)는 5종의 판본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 1209년의 고려본은 정각본이다. 「誠初心學人文」(1607, 壬辰倭亂以後刊 後刷)이 있고,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1378)은 귀중한 판본이다. 「南明泉頌永嘉證道歌」(조선조 전기)와 「禪家龜鑑」(1610)이 있다. 「大慧普覺禪師書」와 「禪源諸詮集都序」는 조선 초기부터 그 후의 후쇄본들이 나와 판본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夢山和尚六道普說」은 조선전기의 간행본이나 간년미상이다. 예참류의 「雲水壇」(1607년 2종, 壬辰倭亂前後) 3종이 있고, 「禮念彌陀道場懺法」(麗末鮮初, 朝鮮朝後期 翻刻) 3종이 남아 있는데, 그중麗末鮮初本은 기존의 판본과는 다른 계열이다.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570, 1659) 2종과 「諸般文」(1496, 1576) 2종은 모두 간기가 있는데 「諸般文」중 燕山君 2년(1496)본은 결락이 있긴 하나 초기의 판본이어서 가치가 있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임란전후의 판본들이다.

4) 팔상전 복장 전적의 가치는 첫째, 팔상전의 복장자료 60종 중 간기가 있는 것은 고려 禡王 4년(1378)부터 宣祖 41년(1608) 사이의 것으로 팔상전의 복장불사를 위해 인근의 高山, 順天, 光州, 潭陽, 羅州, 淳昌 등의 전라도 지역 및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한 판본들이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제는 경전류, 선종관계, 예참류 자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전류 자료 중에서는 「楞嚴經」권1-5는 世宗 25년(1443)에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매우 귀한 책이다 「川老金剛經」은 고려 禡王 13년(1387)의 金沙寺本을 太宗 10년(1410)에 다시 중간

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무량사 번각본 「月印釋譜」권23은 明宗 14년(1559)의 無量寺에서 개판된 번각본이지만 완질본으로 초판본의 앞부분 중 일실되었던 15장을 복원하고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선종류 자료 중에서 고려 말의 정각본인 「法集別行錄并私記」1책은 高麗 熙宗 5년(1209) 己巳 夏月日에 쓴 知訥의 私記가 붙어 있고, 판각이 깨끗하여 핵심이 판각한 정각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매우 귀중한 판본에 해당한다. 또한 成宗 17년(1486)에 간행된 圭峯菴本도 조선초기의 판본으로는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禪王 3년(1377)의 주자본을 다시 목판에 간행한 것으로 판각은 깨끗한데 일부 낙장이 있어 2001년 6월 5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넷째, 예참류 자료들은 모두 의례에 관한 것으로 두드러진 것들은 없으나 16세기 ~ 17세기의 자료들 중 기존의 판본들과 다른 것들이 몇 가지 발굴되어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姜順愛. 靈光 佛甲寺 所藏의 無量寺 翻刻本 「月印釋譜」卷23 卷首部分에 관한 연구-제 1 ~ 15장을 중심으로-.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2002. 伽山學報 제10號 .11-49.
- 姜順愛. 靈光 佛甲寺의 腹藏典籍考. 동국대사찰조경연구소, 1998. 사찰조경연구 6집, 19-48.
- 姜順愛.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卷23에 관한 연구 ; 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서지학회, 1992. 季刊書誌學報 第8號, 3-26.
- 姜沆(睡隱). 佛甲寺重修勸施文
- 동국대박물관. 靈光母岳山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 동국대박물관 2001.
-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서울: 동관리국, 1988.
- 閔泳珪. 月印釋譜第二十三殘卷. 서울: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63. 東方學

志 第6輯.

佛甲寺大雄殿(寶物830號).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2. 한국의고건축 14(1992), 89.

佛甲寺十六羅漢造像願文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 서울: 동연구원, 19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문화재 제4권: 불교문화재(2). 2003.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 서울: 가산불교
문화연구원, 1997. 112.

李萬石. 佛甲寺古蹟記.

李益齊. 佛甲寺覺眞國師慈雲塔碑.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釋林會, 1983. P. 30-31.

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影印解題本).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八相殿重建上樑文.

K C I

< 부록 1> 佛甲寺八相殿 (十六羅漢殿)

1. 예념미타도량참법(예참-일반의례)

禮念彌陀道場儀法, 卷 6-10 / 王子成(元)集. - 木板本. - [成宗年間] 刻, [朝鮮朝前期] 翻刻. -

4卷1冊: 四周雙邊, 半郭 23.7 × 18.3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4.3 × 22.7cm.

跋: 成化10年(成宗5, 1474) ... 金守溫跋
施主秩: 仁粹王妃
書員: 白終麟

2. 묘법연화경(언해)(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諺解), 卷 1 / 戒環(宋)解: 一如(明)集註. - 刊經都監翻刻本. - [任辰倭亂以前]. -

1冊(卷末落張): 四周雙邊, 半郭 21.5 × 18.3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0 × 22.7cm.

經箋: 天順7年(世宗9, 1463) 九月初二日 ... 尹師路等謹上箋奉教雕造

3.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선종-한국찬술)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上下 / 白雲和尚 景閑(高麗)著. - 木板本. - 驪州: 鷲巖寺, 高麗禑王 4(1378). -

1冊(落張): 四周單邊, 半郭 16.7 × 12.5cm, 半葉 11行20字, 上黑魚尾; 23.6 × 16.0cm

※ 국립중앙도서관 판본보다 상태가 좋음
※ 정문연본은 보물로 지정됨

4.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선종-한국찬술)

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 / 知訥(高麗)著. - 木板本. - [高麗末期]. -

1冊: 四周單邊, 半郭 17.5 × 11.8cm, 無界, 半葉 11行21字, 版心上: '私記', '張次'; 29.0 × 18.9cm.

卷末: 2張 補鈔

跋: 大安元年(高麗熙宗5, 1209)己巳夏月日
海東曹溪山牧牛子知訥私記

※ 고려말의 각본으로 精刻本임

5.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 卷 4-7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 - 木板本. - 太宗5(1405)刻 [後刷]. -

1冊: 上下單邊, 半郭 19.0 × 14.0 cm, 無界, 半葉 10行20字, 無版心: '法', '卷次', '張次'; 27.4 × 15.2cm.

跋: 永樂3年(太宗5, 1405) 春三月下澣... 權近跋

書寫: 成達生 成概

施主秩: 大功德主 徐元吉

6.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 卷 1-3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木板本。－〔朝鮮朝初期〕
刊〔後刷〕。－

1冊：四周單邊，半郭 21.2 × 13.2cm.，無界，
半葉 10行20字，無版心：‘法’，‘卷次’，‘張
次’；28.4 × 18.3cm.

序：靖康丁未暮春…及南撰

卷1末：施主 前清涼寺大禪師 信□

卷3末：黃振孫書，禪宗大禪師 思濟

7.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卷2-3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木板本。－〔朝鮮朝初期〕
刊〔翻刻〕。－

1冊：四周單邊，半郭 21.2 × 13.2cm.，無界，
半葉 10行20字，版心上：‘法’，‘卷次’，‘張
次’；28.4 × 18.3cm.

卷3末：黃振孫書，玉龍寺大師 信敏

8.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卷1-7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木板本。－世宗25(1443)刊
〔後刷本混入〕。－

2冊：四周單邊，半郭20.9 × 13.2cm.，無界，
半葉 10行20字，版心上：‘法’，‘卷次’，‘張
次’；28.4 × 18.3cm.

卷末：正統8年癸亥(世宗25, 1443)五月日
… 成達生 跋

刊記：全羅道高山地佛山山花岩寺開板
校正：尙闇

大化主：惠信

板首：思安

刻手：信孝，海南，法澄，信戒…

卷5末：施主秩 禪宗大禪師 省還 外

9.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卷1-3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木板本。－世宗25(1443)
刊，〔翻刻後刷〕。－

1冊：四周單邊，半郭20.3 × 13.0cm.，無界，
半葉 10行20字，版心上：‘法’，‘卷次’，‘張
次’；28.4 × 18.3cm.

卷3末：大施主禪師 洪禪 禪師 志瓊

大化主：六正 信牛

幹善：學義

10. # 9의 복본임

卷首初 8張補初

11. 묘법연화경(경전-법화부)

妙法蓮華經，卷4-6 / 鳩摩羅什(姚秦)譯
；戒環(宋)解。－木板本。－〔朝鮮朝初期〕刊
〔翻刻〕。－

1冊(落張)：四周單邊，半郭 21.7 × 12.8c
m.，無界，半葉 10行20字，版心上：‘法’，‘卷
次’，‘張次’；28.4 × 18.3cm.

變相圖가卷首에 3張 있으며 그중 첫 번째의
것은 神將像이며 그 끝에 化主 信用에 이어
施主 ‘秦用成 □得呂 金成介 梁仲信 林大
邦 洪姜 金羅永 南末巾 □其屈伊’ 刻入

12-1. 선원제전집도서(선종 중국찬술)

禪源諸詮集都序，上·下/ 宗密(唐)述。－

木板本. - 高山: 花岩寺, 成宗24(1493). -
1冊: 四周單邊 半郭18.9 × 13.5cm., 無界
半葉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25.6 ×
16.0cm.

刊記: 弘治六年(成宗24, 1493)癸丑七月
有日 全羅道高山地佛名山花岩寺重刻

12-2.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선종-한국
찬술)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 / 知訥(高麗)
著. - 木板本. - 光州: 圭峯菴, 成宗17
(1486). -
1冊: 四周單邊 半郭19.8 × 13.5cm., 無界
半葉 10行21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5.6 × 16.0cm.

跋: 成化22年(成宗17, 1486)丙午夏孟日
大傑
謹跋
刊記: 成化22年(成宗17, 1486)丙午夏全
羅道 光州無等山圭峯菴開板

13. 몽산화상육도보설(선종-중국찬술)

夢山和尚六道普說 / 夢山(元)著. - 木板
本. - [朝鮮朝前期]. -
1帖: 上下單邊, 一折幅 10.0cm.,

14. 대혜보각선사서(선종-중국찬술)

大慧普覺禪師書 / 宗杲(宋)著; 慧然(宋)
錄; 黃文昌(宋)重編. - 木板本. - 鶴鳳山
: 石頭寺, 明宗1(1546). -
1冊: 四周單邊 半郭15.6 × 11.5cm., 無界

半葉10行20字, 白口, 版心上: '書', '張次';
23.0 × 15.2cm.

原刊記: 乾道2年(毅宗20, 1166)歲次丙戌
八 月日勅賜徑山妙喜菴刊行

刊記: 嘉靖25年丙午(1546)鶴鳳山石頭寺
刊施

15-1. 남명천송영가증도가(영가진각선사증
도가)(선종-중국찬술)

南明泉頌永嘉證道歌, 一名, 永嘉眞覺禪師
證道歌 / 法泉(宋). - 木板本. - [朝鮮朝前
期]. -

1冊: 左右雙邊 半郭 16.1 × 11.4cm., 無界,
半葉 10行19字, 白口, 上黑魚尾; 25.4 ×
14.6cm.

15-2. 천노금강경(경전-반야부)

川老金剛經 / 治父 川老(宋)註解. - 木板
本. - 太宗10(1410). -

1冊: 左右雙邊 半郭 18.5 × 12.2cm., 無界
半葉 10行21字, 白口, 上黑魚尾; 24.5
× 14.6cm.

卷末: 金剛般若 非色非聲 川老註解難相
難名 空禪重刊亦勿人情弔成流通電轉風
行誦說 書持六國 自清四恩三有無滅無生
四海不波 遠帝鳥鳴永樂庚寅(太宗10, 141
0)臘月才明稽 首跋尾幻人杉庭 同願道人
信志

16.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경전-경집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

楞嚴經, 卷 1-5. / 殷刺蜜帝(唐) 譯; 戒環(宋)解. - 木板本(成達生書體系). - [世宗年間(1418-1450)]. -

1冊: 四周單邊, 半郭 22.4 × 14.5cm., 無界, 半葉 11行22字, 版心上: '楞', '卷次', '張次': 27.8 × 17.3cm.

17. 예념미타도량참법(예참-일반의례)

禮念彌陀道場懺法, 卷 1-4 / 王子成(元) 集. - 木板本. - [麗末鮮初] 翻刻. -

1冊: 四周單邊, 半郭 18.8 × 12.6cm.,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25.3 × 16.3cm.

舊序: 崇慶2年((1213) 中春望日

18. 예념미타도량참법(예참-일반의례)

禮念彌陀道場懺法, 卷 5-10 / 王子成(元) 集. - 木板本. - [朝鮮朝後期]. -

1冊: 四周單邊, 半郭 18.0 × 12.5cm.,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25.3 × 18.5cm.

卷末: 捍□義天書

19. 선가구감(언해)(선종-한국찬술)

禪家龜鑑(諺解), 卷 上下 / 休靜(朝鮮) 著. - 木板本. - 光海君2(1610). -

1冊: 四周單邊, 半郭 17.3 × 12.7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5.3 × 18.5cm.

欄外: 施主者 鄭欣然, 愁里德, 安 妣, 崔彭

年...

校正: 善修

鍊板: 玉希 ...

刻手: 太華, 道梅, 金千貴, 應信, 智賢, 寶應, 靈應, 敬宗, 金乃從

刊記: 萬曆三十八年庚戌(光海君 2, 1610)

三月日全羅道開刊

20.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선종-한국찬술)

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 / 知訥(高麗) 著. - 木板本. - 祥原: 解脫寺, 宣祖4(1571). -

1冊: 四周單邊, 半郭 18.8 × 13.1cm., 無界, 半葉 10行21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4.5 × 16.0cm.

刊記: 隆慶四年庚午(宣祖 4, 1571)五月日平安道祥原地大靑山解脫寺開板深谷寺移留

21. 선원제진집도서(선종-중국찬술)

禪源諸詮集都序 / 宗密(唐) 述. - 木板本. - 晉州: 新興寺, 中宗32(1537). -

1冊: 四周單邊, 半郭 18.8 × 13.0cm., 無界, 半葉 10行20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4.8 × 17.0cm.

刊記: 嘉靖十六年丁酉(中宗 32, 1537)孟夏日慶尙道晉州地智異山新興寺開板

22. 선원제진집도서(선종-중국찬술)

禪源諸詮集都序, 上下 / 宗密(唐) 述. - 木板本. - 海州: 神光寺, 宣祖 4(1571). -

1冊: 四周單邊, 半郭 17.7 × 13.0cm., 無界

半葉 10行20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4.3 × 16.0cm.

欄外: 大施主 金漢必, 李貴仁

刊記: 隆慶四年庚午(宣祖4, 1571)秋黃海道
海州山神光寺開板

23. 선원제전집도서(선종-중국찬술)

禪源諸詮集都序, 上下 / 宗密(唐) 述. -
木板本. - 金剛山: 楡岾寺 明宗8(1553). -
1冊: 四周雙邊 半郭17.9 × 11.9cm., 無界
半葉 10行20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5.5 × 15.6cm.

刊記: 嘉靖三十二年癸丑(明宗 8, 1553)金
剛山楡岾寺開刊

刻手: 崇贊

鍊板: 會修

24.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선종-한국찬술)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 / 知訥(高麗) 著.
- 木板本. - 智異山: 能仁菴, 宣祖 37(1601). -
1冊: 四周單邊, 半郭 20.3 × 14.1cm., 無界,
半葉 9行20字,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
尾; 27.8 × 17.5cm.

刊記: 萬曆三十二年甲辰(宣祖37, 1601)
春智異山能仁菴開刊移鎮于雙溪寺

25. #24 의 복본후쇄본

26. 선원제전집도서(선종-중국찬술)

禪源諸詮集都序, 上下 / 宗密(唐) 述. -

木板本. - 順天: 松廣寺, 宣祖 41(1608). -
1冊: 四周單邊 半郭20.0 × 13.1cm., 無界
半葉 9行19字, 白口, 上下內向 2,3葉花紋混
入黑魚尾; 29.0 × 18.0cm.

刊記: 大明萬曆三十六年戊申(宣祖 41,
1608) 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刻
刻畫師: 太華, 覺禪, 性玉, 日浩, 玄楫, 性梅,
智海, 應行, 印和, 思益

27. #26 과 동일판본의 후쇄

卷上末: 大明萬曆三十六年戊申(宣祖 41,
1608) 順天府松廣寺

28. 대혜보각선사서(선종-중국찬술)

大慧普覺禪師書 / 宗杲(宋) 著; 慧然(宋)
錄; 黃文昌(宋) 重編. - 木板本. - 頭流山:
新興寺, 宣祖3(1570). -
1冊: 四周單邊 半郭18.6 × 12.5cm., 無界
半葉10行18字, 白口, 上下內向1,2葉花紋
魚尾; 25.0 × 17.0cm.

舊跋: 洪武20年丁卯(禡王 13, 1387) 10月
日... 李穡 跋

刊記: 隆慶4年庚午(宣祖3, 1570)抄冬頭
流山新興寺開刊

29. 대혜보각선사서(선종-중국찬술)

大慧普覺禪師書 / 宗杲(宋) 著; 慧然(宋)
錄; 黃文昌(宋) 重編. - 木板本. - (壬辰
倭亂以後) -

1冊(破本): 四周單邊, 半郭 18.0 × 12.8cm.,
無界, 半葉 10行18字, 白口, 上下內向 1,2葉

花紋混入黑魚尾：26.0 × 17.5cm.

30. 고봉화상선요(선종-중국찬술)

高峯和尚禪要 / 原妙(宋) 著; 持正(宋) 錄; 洪喬祖(元) 編. - 木板本. - 高山: 安心寺, 宣祖8(1575). -

1冊: 四周單邊, 半郭 17.2 × 12.7cm., 無界, 半葉 10行18字, 白口, 上下內向2葉花 紋混入黑魚尾(間混上黑魚尾); 25.2 × 15.1cm.

序: 甲午10月

刊記: 萬曆三年(宣祖8, 1575)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31. #30의 동판본(과본)

32. 고봉화상선요(선종-중국찬술)

高峯和尚禪要 / 原妙(宋) 著; 持正(宋) 錄; 洪喬祖(元) 編. - 木板本. - 聞慶: 深源菴, 中宗20(1525)刊〔後刷〕. -

1冊: 四周單邊, 半郭 19.1 × 12.6cm., 無界, 半葉 8行18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2 × 18.0cm.

刊記: 嘉靖四年乙酉(中宗20, 1525)孟春月日 慶尙道聞慶地華山深源菴開刊

33. 고봉화상선요(선종-중국찬술)

高峯和尚禪要 / 原妙(宋) 著; 持正(宋) 錄; 洪喬祖(元) 編. - 木板本. - 智異山: 南臺菴, 中宗34(1539)刊〔後刷〕. -

1冊: 四周單邊 半郭19.5 × 12.6cm., 無界 半葉 8行18字,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7.0 × 16.0cm.

後識: 皇明嘉靖大歲己亥(中宗34, 1539)之春 有一道人靈祉者 欲廣禪要之傳 以惠後學 募緣鋟梓流布萬歲...

刻手秩: 敬希 信崇... 智異山南臺庵開板以傳 新興寺幹善道人靈祉

34. [제반문] (예참-식시의례)

〔諸般文〕 / 〔編者未詳〕. - 木板本. 潭陽: 龍泉寺, 宣祖9(1576). -

1冊: 四周單邊, 半郭 17.5 × 12.9cm., 無界, 半葉 9行16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7.2 × 17.0cm.

刊記: 萬曆四年庚子(宣祖9, 1576)全羅道潭陽地秋月山龍泉寺開刊

刻: 斗雲

鍊板: 敬熙

目次: 觀世音菩薩施食文 夢山和尚施食儀文

35. 계초심학인문(선종-한국찬술)

誠初心學人文 / 知訥(高麗) 撰. - 木版本. - 〔壬辰倭亂以後〕刊〔後刷〕. -

1冊: 四周單邊 半郭18.2 × 13.2cm., 無界 半葉 8行18字,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 混入黑魚尾: 28.0 × 17.0cm.

墨書識記: 己丑年全州南嶺母岳山白蓮庵剃髮被緇衣. 元圭, 元敏, 元下

36. 승가일용식시목록언작법(예참-식시의례)

僧家用食時默言作法 / 井行(朝鮮) 編 - 木板本. - 同福 : 安心寺, 宣祖 2(1570). - 1冊: 四周單邊, 半郭 16.4 × 13.0cm., 無界, 半葉 8行17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4.2 × 16.3 cm.

刊記: 時隆慶三年己巳(선조2,1570)夏全羅道 同福地無等山安心寺開板
刻秩: 性眞

37. 월인석보

月印釋譜, 卷23 / 世祖(朝鮮王, 1455-1468) 命編 - 木板本 - 淳昌: 無量山屋 明宗 14(1559) 翻刻. -

1冊: 四周單邊, 半郭 20.5 × 17.0cm., 有界, 半葉 7行14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5 × 20.5cm.

刊記: 嘉靖三十八年(明宗 14, 1559)四月日全 羅道淳昌地龜岳山無量山屋開板
刻秩: 一訓, 道軒, 慈雲, 守軒, 洗雲, 妙雲, 允器, 木手, 淡月,
化主: 玄緝

38.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예참-전도의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編者未詳]. - 木板本. - [壬辰倭亂以前]. -

1冊: 四周單邊, 半郭 19.5 × 12.6cm., 無界, 半葉 6行15字, 版心上: '水陸', '張次': 29.3 × 17.0cm.

卷末刊記缺失

39. 불설예수십왕생칠경(예참-전도의례)

佛說預修十王生七經 / 藏川(唐) 述. - 木板本. - 睿宗1(1469)刻, [壬辰倭亂前後] 翻刻. -

1冊: 四周單邊, 半郭 20.3 × 15.1cm., 無界, 半葉 8行15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2 × 19.0cm.

刊記: 成化五年(睿宗1, 1469)六月日誌證明慧覺尊者

40. 운수단(가사) (예참-일반의례)

雲水壇(謠詞) / 休靜(朝鮮) 著. - 木板本. - [壬辰倭亂前後]. -

1冊: 四周單邊, 半郭 21.5 × 16.3cm., 有界, 半葉 7行15字, 大黑口, 上下內向 1,2,3混葉魚尾: 27.3 × 19.0cm.

卷末3張缺落

刊記缺失

41. 운수단(가사) (예참-일반의례)

雲水壇(謠詞) / 休靜(朝鮮) 著. - 木板本. - [壬辰倭亂前後]. -

1冊: 四周單邊, 半郭 20.0 × 15.3cm., 有界, 半葉 8行14字,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混葉黑魚尾: 29.0 × 20.0cm.

卷首後末缺落

42. 운수단(가사) (예참-일반의례)

雲水壇(謠詞) / 休靜(朝鮮) 著. - 木板本. - 般若菴, 仁祖7(1639). -

1冊: 四周單邊, 半郭 24.9 × 18.0cm., 有界,

半葉 7行15字,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5 × 21.5cm.

刊記: 崇禎十二年歲次己卯(仁祖7, 1639)
四月日般若菴開刊
刊刻同緣: 淳應, 認敏, 慧能

43. #42 의 복본

44. 육경합부(경진-경집부)

六經合部 / [編者未詳]: 成達生(朝鮮) 書.
- 木板本. - 高山: 安心寺, 世宗6(1424) 刊
〔翻刻〕. -
1冊: 四周單邊 半郭19.9 × 13.0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27.0 × 16.0cm.

跋: 永樂甲辰(世宗6, 1424) …成達生 跋
刊記: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刻手: 尙聰
目次: 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 奉詔
譯.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
賢行願品 / 般若 奉詔譯. 妙法蓮華經觀世
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 鳩摩羅什
奉詔譯. 大佛頂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
文.

45. - 52. # 44의 翻刻本

53. 불설대보부모은중경(경진-위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木版本. - 羅州: 雙溪寺, 明宗
2(1547). -
1冊: 四周單邊 半郭19.3 × 13.8cm., 無界

半葉 8行15字, 版心上: '恩', '張次'; 25.8
× 16.4cm.

刊記: 嘉靖二十六年(明宗2, 1547)十月日
全 羅道羅州地雙溪寺開板

54. [제반문] (예참-식시의례)

〔諸般文〕 / 〔編者未詳〕. - 木板本. - 燕
山君2(1496). -
1冊: 四周單邊, 半郭 18.1 × 12.8 cm., 無界,
半葉 8行17字, 白口, 上2葉花紋魚尾: 23.8
× 15.0cm.

刊記: 弘治九年(燕山君 2, 1496) 居昌士王
目次: 觀世音菩薩施食文. 甘露水眞言.

55.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예참-식시의례)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 井行(朝鮮) 編 -
木板本. - 孝宗10(1659). -
1冊: 四周單邊 半郭16.5 × 12.4cm., 無界
半葉 8行17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5.5 × 17.0 cm.

墨書識記: 隆慶二年戊辰(宣祖1, 1568)六
月日印出諸經施主秩 …
墨書識記: 順治十六年己亥(孝宗 10, 165
9) 十月二十一日筆執山僧人

56. 계초심학인문(선종-한국찬술)

誠初心學人文 / 知訥(高麗) 撰. - 木板本.
- 順天: 松廣寺, 宣祖40(1607). -
1冊: 四周單邊 半郭19.1 × 13.2cm., 無界
半葉 8行17字, 白口, 上下內向 1.2葉花紋魚

尾: 26.5 × 14.5cm.

刊記: 大明萬曆三十六年 宣祖 40, 1607)

戊申八月日順天府松廣寺重刊

書: 雲衲學明

合刻: 蒙山和尚法語略錄

57-1. 천노금강경 (경전-만야부)

川老金剛經 / 冶父 川老 (宋) 註解. - 木板

本. - 高麗禑王13(1387). -

1冊: 左右雙邊 半郭 19.2 × 12.1cm., 無界,
半葉 10行21字, 白口, 上黑魚尾: 26.6 ×
15.4cm.

跋文: 洪武20年(高麗禑王13, 1387)秋七
月二十五日 ... 李審跋

化主: 志成 覺毫

重刊: 志淡

57-2. 선종영가집 (선종-중국찬술)

禪宗永嘉集 / 玄覺(唐) 撰; 行靖(宋) 注淨
源(晉) 修定: 己和(高麗-朝鮮)說誼. - 木
板本. - [成宗3(1472)]. -

1冊: 左右雙邊, 半郭 16.7 × 11.5cm., 有界,
半葉 9行20字, 上黑魚尾: 26.6 × 15.5cm.

卷末: 刊記缺落

‘宋板本の 變각이라 判각이 정교함’

КСІ